

2011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0

에베소서
(2)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새사람의 창조자

성경: 창 1:26, 엡 2:14-16, 4:22-24

I.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한 단체적인 사람을 갖는 것이었다—창 1:26, 엡 2:15.

A.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시어 사람이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게 하셨다—창 1:26.

B. 새 창조 안에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운다—골 3:10-11, 엡 2:15, 4:24, 6:10-11.

C. 옛 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사람 안에서 회복된다—창 11:5-9, 행 2:5-12, 골 3:10-11.

II. 하나님의 시, 걸작품인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되었다—엡 2:10, 15-16.

A. 우리는 15 절에 있는 ‘ 자기 육체 안에서’ 와 ‘ 그분 자신 안에서’ 라는 두 구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우주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히 2:14), 죄(롬 8:3, 요 1:29), 타락된 사람의 육체(갈 5:24), 사탄의 악한 체제인 세상이라는 코스모스(요 12:31), 옛 사람으로 대표되는 옛 창조물(롬 6:6), 율법의 분리하는 규례들(엡 2:15)이다.

2. 영역과 요소와 본질인 ‘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a. 그리스도는 교회인 한 새사람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새 사람이 창조된 영역이시고, 새 사람을 창조한 요소와 본질이다.

b.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가 되게 하신 한 새사람의 요소와 본질 자체이시다—비교 골 3:10-11.

B. 새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다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신성한 요소를 나눠주시어, 우리를 우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항목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품인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롬 6:6, 고후 5:17.

1. ‘ 걸작품’ 이라는 헬라어는 ‘ 포이에마’ 로서, ‘ 시로 쓰인 것’ 을 의미한다.

2. 시적인 글만 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

3.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 편의 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시품이다—엡 3:10-11.

4.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되셨다—고전 1:30.

- a. 의(우리의 과거를 위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롬 5:18, 8:10.
 - b. 거룩하게 함(우리의 현재를 위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6:19, 22.
 - c. 구속(우리의 장래를 위한), 즉 우리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8:23, 빌 3:21.
5.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전시품이 되게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III.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시어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을 창조하셨다—엡 2:14 하-15 상.

- A. 15 절에서 말한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인데, 주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 B. 규례들은 적대감과 분열을 만드는, 생활이나 경배의 형태나 방식들이다.
 - 1.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생활과 경배에 관한 모든 규정들, 민족들을 나눈 규정들을 없애 버리셨다—15 절, 골 2:14.
 - 2. 바벨의 때부터 인류는 생활과 경배의 방식에 관한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바벨을 이겨야 한다—창 11:1-9.
 - a.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문화나 국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비교 골 3:10-11.
 - b. 세상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위신의 근원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위신을 벗어버렸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위신은 그리스도이고 진정한 하나이다.
 - c.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문화적인 자부심을 버린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이다—엡 4:22-24.

IV. 한 새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한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2:14 상, 15 하, 골 3:12-15, 2:14-18, 롬 5:1, 마 18:21-35.

- A. ‘판정을 내리다’ 라는 헬라어 용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 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불만을 해결한다—골 3:13-15.
- B. 종종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삼자—공정적인 편, 부정적인 편, 중립적인 편—를 의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다툼을 해결하려면 내적인 판정이 필요하다.
 - 1. 우리 속에 있는 다른 편이 다투거나 따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에게 지위를 주고 새사람의 하나인 이 화평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고 최종적인 말을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 2.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관념을 제쳐놓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C.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들 사이의 모든 다툼을 수습할 것이다.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화평의 판정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갈등은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달콤함 속에 보존되고 새사람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유지된다.
 - 2.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이시다—비교 사 9:6-7.

3.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걸리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화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4.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야 하고 매는 띠가 되어야 한다—엡 4:3.

V.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골 3:10-11.

- A.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다—1:27, 3:11.
 1. 그리스도가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므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어떤 종족이나 국적이거나 문화나 사회적 신분)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가 전혀 없다—10-11 절.
 2.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한 새사람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아무 것도 아니다.
 3.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뿐이다—2:17, 3:4, 11.
- B. 한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엡 2:15, 3:17 상.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한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2.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한 인격이 있다—갈 2:20, 엡 3:17 상.
 3. 한 새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옛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롬 6:6, 갈 2:20, 엡 4:22-24, 3:17 상.
 - a.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신 그분과 함께 새사람 안의 생명을 살아야 한다.
 - b. 일단 우리가 한 새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혼자 일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 c. 우리는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고 단체적인 새사람이며, 우리의 생활(인격)과 움직임(생명)이 둘다 단체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전 12:12, 롬 12:4-5.
 4. 우리는 에베소서 2 장 15 절의 ‘한 새사람’을 로마서 15 장 6 절의 ‘한 입’과 고린도전서 1 장 10 절의 ‘같은 것을 말하고’와 함께 상고해야 한다.
 - a. 과거에 너무 많은 입들이 있었던 것은 너무 많은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b.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롬 15:6)란 우리가 많고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10.
 - c. 우리는 많고, 많은 곳에서 왔지만, 모두가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엡 2:15, 4:22-24, 3:17 상, 롬 15:6, 고전 1:10.